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표지 탐색하기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제목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

2) 책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예순다섯 나기모 학생과 생각쟁이 사고뭉치 열 살 유희망 선생의 좌충우돌 한글 떼기 대작전

오백 년 고집을 자랑하는 수상한 할아버지가 글초등학교에 나타났어요. 옷차림은 물론 말하고 생각하고 책 읽는 것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할아버지. 한글만 써 온 아이들과 한자만을 고집하는 막막골 훈장님의 팽팽한 신경전!

① 이 내용을 보면, '나기모' 학생의 성격은 어떨 것 같은가요?

⇒

② '나기모' 학생과 '유희망' 선생은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좌충우돌할 것 같은가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어느 집안 몇 대손이냐고 물었다 이놈아!” ()

•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본관은 나주이며, 세종 임금님 시절에 영의정 벼슬을 지낸 나영광 씨의 37대손 나기모라고 하요.” ()

• “기모 율이라고 불러 주시오.” ()

• “큘름, 그레도 모르면 배워야지. 나는 처음부터 공부하러 왔다고 했느니라. 막막골 선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

• 조선 시대 명필가 한석봉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썼어요. ()

(나) • 머리에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갸를 쓰고, 옷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은 하얀 데다 가슴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어요.

1) (가)에서 밑줄 친 낱말의 의미를 아래에서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쓰세요.

- ① 대를 이을 자손.
 - ② 글씨 잘 쓰기로 이름난 사람.
 - ③ 한 집안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이 난 곳.
 - ④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
 - ⑤ 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성(姓)이나 이름 뒤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서 부르거나 이르는 말.

2) (나)에서 로 표시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찾아 쓰세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이 많고 쓰는 순서가 복잡해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더 크면 배우게 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 “막막골에서 같으면……, 이런 ()스런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겠지만…….”
 •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데!”
 • “나쁘게 말하면 ()적이지만, 좋게 말하면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 외부의 도움 없이 말이야.”
 (나) •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 “한글을 몰라? ㉢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고?”

1) 문맥상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기호를 써 넣으세요.

- ① 불경(不敬) : 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서 무례함.
 ② 획(劃) : 글씨나 그림에서, 붓 따위로 한 번 그은 줄이나 점.
 ③ 폐쇄(閉鎖) : 외부와의 문화적·정신적인 교류를 끊거나 막음.
 ④ 지조(志操) :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깨끗한 의지.

2) (나)의 ㉠과 ㉡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인 속담입니다. 그 뜻을 각각 풀어 써 보세요.

㉠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희망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모 웅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지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자, 희망이가 ‘ㄱ’과 ‘ㅏ’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모 웅, ‘ㄱ’과 ‘ㅏ’가 만나 ‘가’가 되는 거예요. 가!” / “가.”
 기모 웅이 물었어요.
 “그럼 ‘ㄴ’과 ‘ㅏ’가 만나 ‘나’가 되는 것이냐? ‘ㄷ’과 ‘ㅏ’가 만나 ‘다’가 되고?”
 (나) • “여기 계신 할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분이다. ㉠나는 있으시지만 배움에 대한 의욕이 대단한 분이니 많이 도와드리고.”
 • 교장 선생님이 기모 웅을 보고 물었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지요?” / “물론이지요.”

1) (가)의 밑줄 친 세 낱말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아래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낱말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	모양이 바뀌는 부분
반짝이며	반짝이	
가리키며		
되는		

2) (나)의 밑줄 친 ㉠, ㉡를 문장에 어울리도록 높임말로 고쳐 쓰세요.

⇒ ㉠ :

㉡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 날아간다. 슈웅~" / "나는 더 높이 난다. 피웅~"

태경이도 질세라 힘껏 신발주머니를 던졌어요. 신발주머니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
가 나뭇가지를 툭, 투둑, 건드리며 떨어졌어요. 동시에 비명 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아얏!" / 신발주머니가 골목을 막 빠져나온 할아버지 머리를 정통으로 맞힌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할아버지는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예, 옛날 사람이다!" / 희망이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 온 옛날 사람 같았어요.

(나) 희망이는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속이고 교실까지 찾아온 할
아버지라면, 공공이도 그런 공공이가 없을 테니까요. 아마 복수를 해도 끔찍한 복수
를 하려고 덤빌 거예요. 희망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두려움 못지않게 호기심도 발동했어요. 무슨 일인
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중심에 자신
이 서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가)에서 '희망이'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랐던 이유는 무엇인
지 쓰세요.

⇒

2) (나)에서 '희망이'가 교실에 온 '할아버지'를 보고 속이 바짝바짝 탄 이유는 무엇
인지 쓰세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희망이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희망이가 연습장
에 크게 '가' 자를 써서 보여 주고 말했어요.

"기모 웡, 이게 '가' 자입니다. 따라 하세요. 가!"

그러나 기모 웡은 고개를 가우뚱거리기만 할 뿐 따라 하지 않았어요.

"기모 웡, '가'라니까요. 가!"

희망이가 다그치자 기모 웡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 희망아. 그게 '가' 자라는 건 알겠는데 무슨 '가' 자인지 말해 주어야 따라
읽을 게 아니냐? 집 가(家)면 집 가, 아름다울 가(佳)면 아름다울 가. 이렇게 알려 줘
야지 '가'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희망이가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기모 웡, 이건 그냥 '가' 자예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니까요."

"그럼 진짜 '그냥 가' 자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지, 원. 그냥 가."

기모 웡이 따라 했어요. 희망이가 이번에는 '나' 자를 썼어요.

"나!" / "아니, 희망아, 이것도 무슨 '나' 자인지를 말해 주어야지."

"그냥 '나'예요." / "그냥 나!"

윗글에서 '기모 웡'이 '희망이'에게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 ㉡에 각각 알맞은 말을 쓰세요.

희망이 : 한글	기모 웡 : 한자
• 한글은 ㉠만 있고 ㉡은 없음 예 ㄱ + ㅏ = 가	• 한자는 ㉢과 ㉣이 있음 예 家 : 집 가 / 佳 : 아름다울 가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오백여 년 전,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할 무렵이다. 당시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양반과 학자들이 한글 반포를 반대했지.

“전하, 한글은 한 획 한 획에 뜻을 가진 한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한 글이옵니 다. 한글 반포를 거두어 주소서.” / 하지만 한글은 일파만파 백성들 사이로 퍼져 나 갔어. 백성들에겐 한글같이 쉬운 글자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양반과 학자들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지.

“전하, 한글은 양반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쉽고 깊이가 없어서 양반 체통을 지키기 어렵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님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 하는 양반과 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

“천한 문자인 한글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시오.”

“고급 문자인 한자만 쓰면서 고상하게 살 사람들 또한 모두 오시오.”

그렇게 모인 막막골 사람들은 오백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한자 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단다.

1) 윗글에서 당시의 양반과 학자들이 한글 반포를 반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쓰세요.

⇒ ①

②

2) 윗글에서 한글 반포를 반대하는 양반과 학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서술하세요. 단, 본문에 나온 한글의 우수성을 포함하여 쓰세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희망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보람을 느껴 본 적은 없었어요. 기모 웅도 희망이 못지않게 기뻐했어요. 태경이와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펄쩍펄쩍 뛰었고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까지 달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버럭 화를 냈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지?” / 희망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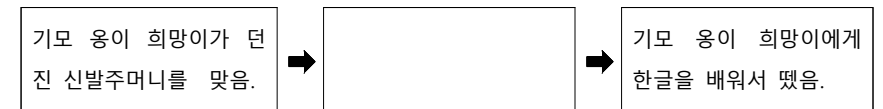
“교장 선생님, 기모 웅이 한글을 땀어요.”

(나) “내가요?” /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묻자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일주일 안에 기모 웅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가능성을 인정하고 막막골로 초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니까 신발주머니 던진 애를 찾아 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내가 직접 한글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약속했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했지만 막막골 훈장으로서 이곳 경험도 중요할 것 같았다.”

1) 다음은 (가)~(나)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나) 다음에는 ‘희망이네 반’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 서술하세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사고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중 가운데 있는 아이가 나무 팻말을 들었어요.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입을 꼭 다물었어요.

“何來”

팻말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지만, 희망이와 아이들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한자였어요. 아이들 눈이 저절로 교장 선생님을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래?” 하고 한자를 읽었어요. 대나무를 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지요.

(나) “따라와. 하지만 대나무 숲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 숲은 신성한 곳이야.”

그러고는 발소리는커녕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조용 걸었어요. 대나무를 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랐고요. 희망이와 아이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희망이는 ‘何來(어찌 하, 올 래)’란 말이 ‘어찌 왔냐?’는 뜻이었다는 걸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모 웅을 만나러 왔다는 말이 통한 거지요.

1) 윗글에서 ‘희망이네 반’과 ‘교장 선생님’은 “何來”라는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해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지 써 보세요.

⇒

2) 윗글에서 ‘희망이네 반’처럼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써 보세요.

⇒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초등 4학년)

파란자전거 | 김은의 글/ 한상언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책 제목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 중에서 ‘글’자의 좌우 방향이 바뀌어 있다. 2) 갓을 쓴 막막골 훈장님 할아버지가 땀을 찰찰 흘리고 있고,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머리와 어깨에 매달려 있다. 3) 예순다섯 나기모 학생은 고집이 세고, 옛날 옷차림과 한자를 좋아할 것 같다. 4) 나기모 학생은 한자만을 고집하고, 유희망 선생은 한글만 사용해서 서로 좌충우돌할 것 같다.
2쪽	1) ㉠, ㉢, ㉤, ㉡, ㉣ 2) 옛날 사람들
3쪽	1) ㉡, ㉠, ㉣, ㉢ 2) ㉠ :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 함을 이르는 말. ㉢ :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이르는 말.
4쪽	1) 며 / 가리키 / 며 / 되 / 는 2) ㉡ : 연세, ㉣ : 지키시는
5쪽	1) 희망이가 던진 신발주머니가 할아버지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서 2)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맞은 할아버지가 희망이에게 끔찍한 복수를 하려고 덤빌 거라 생각해서
6쪽	1) ㉠ : 음, ㉢ : 뜻
7쪽	1) ㉠ 한글은 한 획 한 획에 뜻을 가진 한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한 글이라서 ㉡ 한글은 양반들이 쓰기에는 쉽고 깊이가 없어서 양반 체통을 지키기 어려워서 2)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 반포를 반대하고,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8쪽	1) 기모 웅과 교장 선생님이 내기를 함. 2) 기모 웅과 교장 선생님이 한 내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겨서 희망이네 반이 막막골로 초대 받을 것이다.
9쪽	(예시답안) 1) 우리글의 70% 이상이 한자어인데 한자를 모르면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한자어가 많이 쓰인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방학 동안에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일본의 집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맸던 경험이 있다. 화장실을 영어로 물어보았지만, 일본말로 대답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일본어로 된 안내 표지판도 읽을 수가 없었다.